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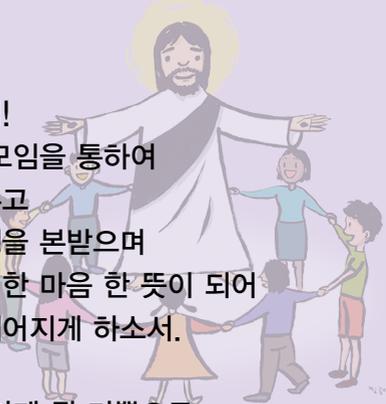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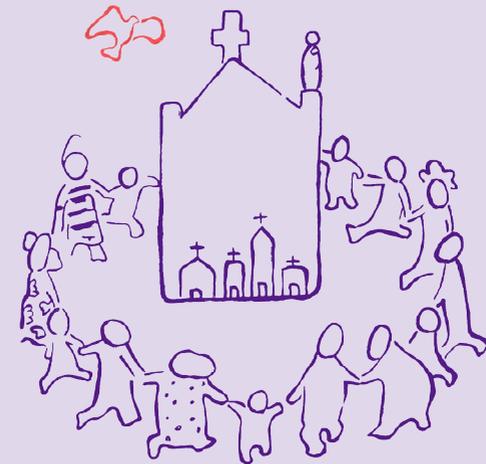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사순 제1주일(3월 10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루카 4,1-13)



###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님

-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 1308-1311, Tempera on wood Frick Collection, New York) -

오른손을 뻗어 산 아래의 화려한 도시들을 가리키며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은 위엄 있는 표정으로 한 손은 겹옷을 잡고, 또 한 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친다. 사탄은 험상궂은 모습 속에 숨겨진 가련함과 나약함을 드러낸 채 예수님의 눈치만 살핀다. 이제껏 예수님을 유혹하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믿음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2. 17.

###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루카 4,4)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능력 밖의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들과 그 유혹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루카 4,13)

우리들은 이 인생의 광야를 유혹의 장이 아니라 하느님과 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을 위한 나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법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까닭은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훔쳐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직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그러한 감정에 신명이 난다면, 그것은 단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당신은 사랑이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에는 또한 책임이 따르며, 다른 힘든 일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사랑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진전이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만 의지해 온 나이 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당신이 사랑의 더욱 충만한 의미를 받아들여 이타적 헌신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가시어 거기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도 가지가지이지만, 그 모든 유혹은 우리를 “끝까지”(요한 13,1)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헌신을 흐트러 놓으려는 똑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녀야 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간청해 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24장 “은혜로운 회개의 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사순 제2주일(3월 17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루카 9,28ㄴ-36)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 라파엘로, 1518-1520, Oil on wood, 바티칸 박물관 -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은 번쩍이는 흰옷을 입은 모습이다. 이 영광스런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격한다. 이어 하늘 위로 역동적으로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라는 말씀이 울린다. 라파엘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를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서울주보, 2013. 2. 24.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72장 “다불 산의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8ㄴ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루카 9,33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는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느님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루카 9,36ㄴ)

이 부분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일과 돈 문제로 지친 사람에게 교통 체증은 더욱 짜증스럽습니다. 그는 긴장과 걱정 속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언덕 마루를 넘어서며 그가 사는 골짜기 너머로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모두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에서 커튼을 걷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 두어 시간쯤 느긋하게 지내며 하느님의 현존을 찾아보십시오.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잠겨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성당에 찾아가 성체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지 눈을 감고 당신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72장 “다볼 산의 예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

-진영본당 4구역 1반 반장 박미나 필로미나-

진영본당은 설립 84주년을 맞이하는 본당으로 약 450여명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소박한 본당입니다. 허철수 미카엘 신부님의 뛰어난 추진력과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관심과 손길로 본당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시고자 6구역 22개 소공동체로 재정비하셨고, 구역분과장과 소공동체장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에서 돌아가며 전신자들과의 친교와 나눔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역미사를 봉헌하고, 많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전례 참여를 위해 주일미사 전례봉사에 구역별로 한 달씩 봉사합니다. 구역별 전례봉사를 하다 보니 전입 교우를 비롯한 본당 어르신, 그 밖의 많은 신자들이 전례에 참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코아루 1반은 신도시에 속한 젊은 신자들로 보통 5-7명이 소공동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상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심과 격려 속에서 활기차게 소공동체 모임에 임하고 있으며 본당에서 크고 작은 활동(성가대, 레지오마리아, 자모회, 전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웃과 대화할 시간은 물론 하느님과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과 친교를 이루어 갑니다. 혼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여럿이 함께 모이는 소공동체 모임이 꼭 필요함을 절실히 체험합니다. 진영본당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기도하고 삶과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화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고 활동하고 나누는 주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공동체 배우기

###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

#### 1) 영혼의 양식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계시 현장, 2항)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은 무엇보다 성경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요한 1,14)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과 한 몸이 되고, 어떠한 유혹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경청하는 자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과 자세를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말씀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려는 것으로, 그 “첫 단계는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열기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참다운 영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청은 우리를 단순한 방관자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바른 몸짓과 바른 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경청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성숙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향한 열망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171항)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 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주님의 말씀, 174항)

- 『소공동체 교육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 사목국 일정

### ■ 신임 소공동체장 연수

- 일 시 : 3월11일(월) 10:00~15:30
-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주 제 : 신임과 재교육을 원하는 소공동체장
- 대 상 : 1인 10,000원(자료집, 점심 제공)
- 참가비 : 필기구, 개인컵

### ■ 소공동체장 연수

지 구	일 시	장 소
진주지구	3월 28일(목) 오후 1시 ~ 4시	옥봉동성당
거제지구	4월 4일(목) 오후 1시 ~ 4시	거제성당
마산지구	4월 11일(목) 오후 1시 ~ 4시	월영성당
창원지구	4월 23일(화) 오후 1시 ~ 4시	사파동성당

- 주 제 : 『말씀 맛들이기』 이론과 실제
- 강 사 : 이청준 신부님(마산가톨릭교육관 관장)
- 참가비 : 1인 5,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